

銀行員의 情報倫理 水準에 關한 研究

김 경 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동 열
대구은행 본점 과장

김 병 곤
안동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교수

요 약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용컴퓨터 보급의 확산, 컴퓨터교육의 일반화, PC통신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적인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55년에 발생한 역기능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컴퓨터에 무단침입하여 자료의 변조 및 삭제, 금융기관에서 단말기를 조작하여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 경우, 그외에 신용카드나 증권 및 채권을 위조한 사례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같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들이 윤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윤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컴퓨터 관련 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들의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수준을 측정하고 컴퓨터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보윤리 수준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 序 論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체인 情報技術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였으며, 지난날 산업혁명이 몰고온 파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사회에 미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전체의 情報化를 촉진시켜 풍요로운 情報社會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情報化의 逆機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 프로그램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知的 財產權에 대한 문제, 개

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 음란정보의 유통 등과 같은 정보화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컴퓨터 범죄의 경우 컴퓨터 이용의 광역화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하여 이를 발견하고 처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컴퓨터 관련 범죄의 80% 정도가 금융권에서 일어났으며, 최근에 일어난 대형 金融事故의 대부분이 컴퓨터관련 범죄이다 (유상진, 홍순구, 1993).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이나 기관보다 전산화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金錢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행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정보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보윤리에 대한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는 다수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정보시스템에 대한 監査 및 統制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직원들의 情報倫理 수준이 컴퓨터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행위자는 인간이며,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법률로서는 처벌하기 곤란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情報倫理 問題에 대한 研究와 教育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研究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윤리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情報化社會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情報倫理의 개념과 정보윤리의 중요성 및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정보윤리의 내용 등에 관해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은행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은행원의 컴퓨터 범죄와 情報倫理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컴퓨터 범죄의 예방을 위한 情報倫理 水準 提高 方案에 관해 연구하였다.

II. 情報倫理에 관한 理論的 考察

1. 情報倫理의 概念

윤리란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원칙을 말하며,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것으로,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가리키며 행동을 유발한다. 倫理는 그 적용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정윤리, 기업윤리, 직업윤리, 사회윤리, 국민윤리, 情報倫理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情報倫理란 윤리문제를 정보 또는 정보화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정경수, 1995).

정보윤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정보윤리에 포함될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정보윤리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윤리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논점들을 살펴보면,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프라이버시, 지적소유권, 컴퓨터 관련 범죄와 보안, 컴퓨터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해킹과 바이러스,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근로환경과 작업장의 건강, 사이버스페이스와 청소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경수, 1995).

情報倫理를 다루는 관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Moor, 1985). 거시적인 문제란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리킨다. 거시적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법이나 규칙 등의 제도적, 법적장치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미시적인 문제는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로서,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법이나 규칙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각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기초한 정직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 情報倫理의 重要性

情報技術의 발전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법과 규범체제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생성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情報技術은 기존의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도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보기술이 다른 기술이나 기계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정보기술 자체의 특수하고도 혁명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문제들이 중요시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중호, 1992). 첫째,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컴퓨터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컴퓨터 관련 제품들이 구매자나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의 범위와 관련된 심각성 때문이다. 셋째,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 때문이다. 넷째, 빈번한 자료의 교환과 광범위한 이용가능성 때문이다. 다섯째, 컴퓨터가 갖는 데이터의 영속성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山德容은 정보처리 분야에서 정보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영건, 박상호, 1993). (1) 情報特性이 갖는 윤리성 (2) 情報處理要員의 사명감 결여, 不注意, 경험부족, 未熟 등 (3) 專門要員에 의한 범죄 가능성 (4) 시스템의 構造的 弱點, 절차순서의 약점 (5) 모든 기술문제에 공통되는 윤리적 전제조건 (6) 정보가치의 主觀性 (7) 복제의 용이성 (8) 정보의 不滅性 (9) 情報의 불가역성 (10) 정보 擴散性

3. 情報倫理에 관한 先行研究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情報化社會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컴퓨터범죄, 정보처리요원의 직업윤리,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정보시스템의 통제와 감사가 컴퓨터 범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에서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 협회회원들이 업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윤리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경수(1995)는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관의 정립연구라는 논문에서 광범위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정보화사회의 개념, 특징, 문제점 및 정보윤리의 개념과 체계를 소개하였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윤리 수준을 점검한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과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윤리현장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한미의 태도 비교라는 연구논문에서 소프트웨어 不法複製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관한 태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수익율에 대한 견해, 개인과 조직에 대한 소프트웨어 가격의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정경수, 1993).

안중호(1992)는 정보관리분야에 있어서의 기업윤리문제라는 논문에서, 情報倫理문제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컴퓨팅 전문가의 윤리문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誤機能에 대한 책임문제, 컴퓨터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기업정보의 보호와 공개, 컴퓨터 범죄, 컴퓨터와 권력, 프로그램과 정보의 소유권 문제로 나누어 점검하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법적장치들이 필요하지만, 윤

리적 주체인 개인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정직한 행동이 더욱 필요하며, 각 개인들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상진, 홍순구(1993)는 金融機關에서 발생한 컴퓨터 범죄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컴퓨터 범죄 유형을 프로그램 부정조작, 프로그램 착오작성 및 컴퓨터 오류조작, 온라인 단말기 부정조작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온라인 단말기 부정조작으로 인한 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기관 직원들의 윤리수준이 컴퓨터 범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인구, 윤종호(1995)는 은행과 증권회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체계의 강도와 컴퓨터 범죄 위험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김영건, 박상호(1993)는 대구 및 경북구미지역 정보처리요원 및 준전문요원(정보처리 관련 피교육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윤리교육의 필요성, 정보시스템 감사의 제도화, 컴퓨터 종합보험과 배상책임제도의 제도화, 컴퓨터 범죄 관련 처벌법규의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박효정(1994)은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정보윤리 의식 실태 파악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에서도 情報倫理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관한 문제, 접근과 보안에 관련된 문제, 정보처리전문가의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Mason, 1986; Johnson, 1994). 최근에는 情報倫理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잡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情報倫理에 대한 학술회의도 자주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외국 연구자들의 情報倫理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윤리의 내용

연구자	정보윤리의 체계와 범위
Mason (1986)	- 프라이버시 - 정확성 - 지적소유권 - 접근가능성
Laudon (1996)	-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지적소유권 - 책무와 통제 - 시스템의 품질 - 삶의 질
Forester & Morrison (1994)	- 컴퓨터 관련 범죄와 보안 - 소프트웨어 절도와 소유권 - 해킹과 바이러스 - 컴퓨터의 오류와 소프트웨어 품질 - 자료의 저장과 프라이버시 -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의미 - 작업장의 정보화
Johnson (1994)	- 컴퓨터전문가들의 직업윤리 - 지적소유권과 소프트웨어 - 프라이버시 - 컴퓨터범죄, 남용, 해커 - 책임과 포괄책임 - 컴퓨터의 사회적 의미

자료원 : 경경수,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관의 정립연구, 한국 데이터베이스학회, 1995, p. 38.

4. 金融機關에 있어서의 情報倫理

銀行은 업무의 대부분을 컴퓨터에 의해 처리하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기술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료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다. 또한 자료의 처리에 고도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은행업무처리의 대부분은 소중한 남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므로 단돈 1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원에게는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情報倫理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銀行員에게 요구되는 情報倫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on, 1986; 유상진, 홍순구, 1993).

(1) 顧客 프라이버시 保護

銀行은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으

며, 고객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수집·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顧客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倫理問題가 많이 발생한다.

(2) 從業員 프라이버시 保護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근로의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사생활)의 권리, 안전한 작업장에 대한 권리,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권리, 외부활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이종영, 1996). 그런데 情報化社會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종업원 감시가 훨씬 용이해짐으로 인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종업원의 이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싶은 경영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3) 正確性

한번 입력된 정보는 영속성, 불가역성, 불멸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광역적이고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신용이나 사회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고객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의 부정확은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고의에 의해 생긴다. 착오에 의한 부정확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고의에 의한 정보의 부정확은 컴퓨터 범죄가 된다.

(4) 知的財産權 保護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의 소유권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종업원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보의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첫째, 정보는 수집·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고, 둘째, 일단 제작된 정보자료는 복사하기 쉽고, 셋째, 복사해도 원본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복사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이종영, 1996).

(5) 電子金融 販賣에 대한 責任

오늘날 은행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自動化와 電子金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확대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현금카드, 선불카드, 폰뱅킹(phone banking), 홈뱅킹(home banking), 펌뱅킹(firm banking) 등 새로운 형태의 電子金融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PC 등 정보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電子金融을 이용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자금융의 판매에 대한 은행원의 판매 책임도 요구되어진다.

(6) 컴퓨터 犯罪 豫防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컴퓨터 범죄는 지난 1973년 10월 서울 반포 AID차관 아파트 추첨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미리 청약 받았던 9가구를 당첨시켰던 것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세현, 1989). 일반적으로 컴퓨터 범죄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절취,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및 파괴,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횡령,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의 불법침입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III. 研究 方法

1. 資料의 蒐集

은행원의 정보윤리 수준에 대한 實證的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컴퓨터 범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지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慶北 安東市內에 소재하는 일반 시중은행 직

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4월부터 5월까지 안동시내에 소재하는 일반은행중 설문을 거부한 1개 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대리급과 행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4부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이 중 81부를 회수하였다. 銀行別 회수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내용

은행명	배부수량	회수수량
국민은행	15	15
중소기업은행	10	7
대구은행	24	23
대동은행	10	6
제일은행	10	6
조흥은행	20	12
주택은행	15	12
합계	104	81

타 입력, 금품횡령, 데이터 절취, 권한없는 시스템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항목별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내역

설문항목	설문 구성 번호	비고
정보윤리 수준 측정	1, 3, 4, 5, 6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 측정	18, 19, 20, 21, 22	
전자금융 판매책임 및 방법	7, 8, 11	
일반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차이	13, 14	
은행원의 비윤리적 행위 경험 및 원인	2, 9, 10, 15, 16, 17	
정보윤리의 필요성 및 교육방법	15, 23, 24, 25, 26, 27, 28, 29, 30	
인구통계적 특성	31, 32, 33, 34, 35, 36	

2. 設問의 構成

倫理意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의 倫理意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의 대상,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銀行員들이 일상 업무에서 항상 직면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주로 시나리오형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개인의 윤리에 대한 설문의 성격과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행동과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가라는 기준에 따라 응답하려는 습성으로 인해 설문항목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항목은 5점 척도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고객프라이버시 보호, 종업원 감시,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의식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가공의 데이

IV. 資料의 分析 및 結果

1. 標本의 特性

調査對象者의 特性을 살펴보면 먼저 남여의 구성비에 있어서 남자의 비율이 55.6%, 여자의 비율이 44.4%이며, 연령별로는 25세에서 30세 사이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별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가 43.2%로 가장 많았다. 직급별로는 행원 71.6%, 대리 28.4%이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61.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 54.3%가 기혼직원이었다. 상세한 표본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표본의 특성

구분		표본수	구성비(%)
연령	20 - 25세 미만	9	11.1
	25 - 30세 미만	33	40.8
	30 - 35세 미만	27	33.3
	35세 이상	12	14.8
성별	남	45	55.6
	여	36	44.4
근무경력	5년 미만	23	28.4
	5 - 10년 미만	35	43.2
	10년 이상	23	28.4
학력	고졸	50	61.7
	초대졸	8	9.9
	대졸 이상	23	38.4
직급	행원	58	71.6
	대리	23	28.4
결혼유무	기혼	44	54.3
	미혼	37	45.7

10%, 기타 80%로 응답했다. 그리고 은행원은 금전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범죄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 26.0%가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표 5> 고객정보 불법유출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보통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2%	27.2%	14.8%	32.1%	24.7%

<표 6> 부당한 전자금융 판매경험 및 원인

있다			없다
24.7%			75.3%
은행의 이익	고객의 이익	개인별 목표	
22.2%	16.0%	61.7%	

<표 7> 부정확한 데이터나 가공의 데이터 입력 경험

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	없다
7.4%	6.2%	86.4%

2. 資料의 分析 및 結果

(1) 銀行員의 非倫理的 行爲 經驗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에서 은행원들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24.7%에 불과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자금융의 판매 경험 유무에 관한 내용은 <표 6>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은 전체의 24.7%이며, 그 원인으로는 개인에게 부과된 목표달성을 위해서 61.7%, 銀行의 이익을 위해서 22.2%이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는 16.0%에 불과했다. 부정확한 데이터나 가공의 데이터 입력 경험 유무에 관한 조사에서는 <표 7>과 같이 전체의 13.6%가 경험이 있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상사의 지시 10%, 개인적 사유

<표 8> 범죄 유혹 가능성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반대	절대 반대
2.5%	23.5%	23.5%	18.5%	32.5%

(2) 一般犯罪과 컴퓨터 犯罪에 대한 認識差異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범죄가 컴퓨터 범죄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에 대해 13.5%가 동의했으며, 35.9%가 반대, 50.6%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컴퓨터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8.6%가 찬성, 59.2%가 반대, 22.2%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은행원들은 일반범죄와 컴퓨터 범죄를 동일시 하거나 컴퓨터 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9> 일반범죄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반대	절대 반대
일반범죄가 더 나쁘다	4.9%	8.6%	50.6%	13.6%	22.3%
컴퓨터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	2.6%	16.0%	22.2%	18.5%	40.7%

(3) 電子金融 販賣에 대한 責任意識

최근들어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원은 전자금융 판매시 전자금융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설문 분석결과 은행원들은 전자금융의 확산에 대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만이 반대하였으며, 13.6%가 중립적인 태도를, 85.2%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전자금융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60.5%만이 편리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후 판매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편리성만 설명하여 전자금융을 판매한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에 관한 설문에서 <표 12>과 같이 51.9%가 고객의 책임이라고 응답해 전자금융 판매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전자금융 확산에 대한 인식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절대 반대
46.3%	38.9%	13.6%	1.2%	—

<표 11> 전자금융 판매방법

편리성만 설명	편리성과 위험성 모두 설명	고객이 원하면 판매
29.6%	60.5%	9.9%

<표 12>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소재에 대한 의식

고객 책임	판매원 책임	시스템 책임
51.9%	34.6%	13.6%

(4) 人口統計的 特性에 따른 情報倫理 水準 差異

설문 분석 결과 은행원들은 전체적으로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와 종업원 감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윤리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낮은 윤리수준을 보였다. <표 13>은 연령에 따른 정보윤리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25세 미만의 직원들이 타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13> 연령에 따른 정보윤리수준 차이

구 분	평 균 점 수				
	프라이버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복사	종업원 감시
20-25세 미만	3.5556	2.0000	3.4444	2.9111	3.9333
25-30세 미만	3.4242	2.6061	2.6970	2.8182	4.0303
30-35세 미만	3.5926	2.7778	2.3704	2.9259	4.0370
35세 이상	3.3333	2.7500	2.8333	2.9167	3.9167

학력에 따른 정보윤리수준의 차이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 감시에서는 대졸이상과 대졸미만 직원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서는 고졸과 대졸이상의 집단간에는 비슷한 윤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초대졸 집단이 가장 높은 윤리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14> 학력수준에 따른 정보윤리수준 차이

구 분	평 균 점 수				
	프라이버 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 권 침해	불법 복사	종업원 감시
고 졸	3.4200	2.4400	2.7000	2.7200	3.7600
초 대 졸	3.6250	3.7500	3.3750	3.2500	3.7500
대졸이상	3.5456	2.6364	2.4545	2.9545	4.1364

근무연수에 따른 정보윤리수준은 <표 15>와 같이 조사되었는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객프라이버시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일수록 높은 정보윤리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와 종업원 감시에 대해서는 5년미만의 직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5년 이상 직원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5> 근무연수에 따른 정보윤리수준 차이

구 분	평 균 점 수				
	프라이버 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 권 침해	불법 복사	종업원 감시
5년미만	3.8261	2.2608	3.0000	2.8261	3.4783
5-10년미만	3.4000	2.7714	2.6571	2.8571	4.1143
10년이상	3.2609	2.7391	2.4348	2.8696	3.8696

성별, 직급, 결혼 유무에 따른 정보윤리수준의 차이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별, 직급, 결혼유무에 따른 정보윤리수준 차이

구 분	평 균 점 수					
	프라이버 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 권 침해	불법 복사	종업원 감시	
성별	남	3.6889	2.6444	2.5111	2.9111	3.9333
	여	3.2222	2.5833	2.9167	2.7778	3.7778
결혼유무	기혼	3.4419	2.6977	2.5814	2.9070	3.7674
	미혼	3.5676	2.5676	2.8108	2.7838	4.0000
직급	행원	3.4483	2.5517	2.7586	2.7931	3.8448
	대리	3.5652	2.7826	2.5217	3.0000	3.9130

(5) 人口統計의 特性에 따른 컴퓨터 犯罪에 대한 認識 差異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란 컴퓨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설문 분석 결과 은행원들은 금품횡령 등 전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권한없는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는 컴퓨터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에 설치한 PC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은행원들은 일시적인 가공의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가장 낮은 범죄인식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代理級의 경우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근무연수와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연령에 따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직원의 경우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표 17> 연령에 따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 점 수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가공의 데이터 입력	금품 횡령	권한없는 시스템사용	데이터 절취
20-25세미만	3.6667	3.4444	3.8889	2.4444	3.8889
25-30세미만	4.0606	3.3939	4.4545	2.5758	4.0606
30-35세미만	4.1111	3.1852	4.2963	2.7037	3.9630
35세이상	3.8333	2.9167	4.0000	2.4167	4.0833

학력수준에 따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절취를 제외하고는 대졸 이상의 직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초대졸 직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대졸 직원의 경우 데이터 절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금품횡령에 있어서도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학력수준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 점 수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가공의 데이터 입력	금품 횡령	권한없는 시스템사용	데이터 절취
고 졸	4.0600	3.2400	4.2800	2.5600	3.9400
초대졸	3.7500	2.7500	3.2500	2.0000	4.2500
대졸이상	4.0455	3.5455	4.5909	2.8636	4.1364

근무연수에 따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절취와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0년 이상 직원의 경우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근무연수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 점 수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가공의 데이터 입력	금품 횡령	권한없는 시스템사용	데이터 절취
5년미만	3.9131	3.6087	4.2608	2.6522	4.2609
5-10년미만	4.0571	3.2571	4.3714	2.6571	3.9714
10년이상	4.0000	2.9131	4.1304	2.3913	3.8261

성별, 직급,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에 있어서는 행원과 대리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리급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표 20> 성별, 직급, 결혼유무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 점 수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가공의 데이터 입력	금품 횡령	권한없는 시스템사용	데이터 절취
성별	남	3.8000	3.2222	4.2444	2.5333	4.0222
	여	4.2500	3.3056	4.3056	2.6389	4.0000
결혼유무	기혼	4.0698	3.1395	4.1163	2.6047	3.9070
	미혼	3.9459	3.4054	4.4865	2.5405	4.1622
직급	행원	4.0000	3.4138	4.3276	2.7241	4.0172
	대리	4.0000	2.8696	4.1304	2.2174	4.0000

(6) 人口統計의 特性에 따른 컴퓨터 犯罪의 原因에 대한 認識

컴퓨터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은행원들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 51.9%, 범죄행위자의 도덕성 결여 33.3%, 범죄에 대한 처벌 미약 14.8% 등으로 나타나,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5세 미만의 직원과 근무경력 5년 미

만 직원의 경우는 도덕성 결여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대리보다 행원이 시스템의 안전대책 미흡을 덜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혼직원은 도덕성 결여 40.5%,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 40.5%로, 도덕성 결여와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컴퓨터에 대한 신뢰도는 높고, 컴퓨터의 오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컴퓨터 범죄원인에 대한 인식

구 분	도덕성 결여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	범죄에 대한 처벌 미약	
성별	남	31.1	58.8	15.6
	여	36.1	50.0	13.9
연령	20 - 25세 미만	55.6	33.3	11.1
	25 - 30세 미만	33.3	51.5	15.2
	30 - 35세 미만	29.6	55.6	14.8
	35세 이상	25.0	58.3	16.7
근무경력	5년 미만	47.8	34.8	17.4
	5 - 10년 미만	28.6	54.3	17.1
	10년 이상	34.8	52.2	13.0
학력	고졸	34.0	56.0	10.0
	초대졸	12.5	62.5	25.0
	대졸이상	36.4	40.9	22.7
직급	행원	34.5	48.3	17.2
	대리	80.4	60.9	8.7
결혼유무	기혼	27.3	61.4	11.4
	미혼	40.5	40.5	19.0
전 체	33.3	51.9	14.8	

(7) 情報倫理水準과 컴퓨터 犯罪에 대한 認識水準의 關係

情報倫理水準과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情報倫理水準이 높을 수록 컴퓨터 범죄에 대한 認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2> 정보윤리수준과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계

구 분	인 원	정보윤리수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
상위집단(3.5이상)	28명	3.8705	4.0119
중간집단(3.0이상-3.5미만)	22명	3.1648	3.6364
하위집단(3.0 미만)	31명	2.5726	3.5538

(8) 컴퓨터 犯罪豫防 및 情報倫理水準 向上 對策

컴퓨터 범죄의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에서, 은행원들은 <표 23>과 같이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 40.7%, 처벌강화 18.6%,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 40.7% 등으로 응답해,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및 감시와 동시에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정보윤리 수준 향상이 컴퓨터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5%가 찬성하였으며, 정보윤리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에 참가하겠다는 질문에는 <표 25>에 나타난 것처럼 66.7%가 참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情報倫理 수준의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표 26>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53.1%, 관련법규의 처벌강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30.9%,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서 16.0%로 응답해 情報倫理水準 향상을 위해서는 情報倫理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표 27>와 <표 28>에서 보는 것처럼 情報倫理에 대한 교육은 학교와 직장에서 다 같이 실시해야 하며, 교육진행 방법은 이론적인 강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식 강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필요한 情報倫理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情報倫理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 컴퓨터 범죄의 종류와 내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銀行員들이 아직까지 情報倫理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박하고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23> 컴퓨터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	컴퓨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강화
40.7%	40.7%	18.6%

<표 24> 정보윤리 수준 향상이 컴퓨터 범죄에 미치는 영향

매우있을 것이다	조금있을 것이다	보 통	별로없을 것이다	전혀없을 것이다
32.1%	44.4%	14.8%	7.4%	1.3%

<표 25> 정보윤리 교육 참가 여부

적극 참가	조금 참가	보 통	별로참가 하고싶지 않음	전혀참가 하고싶지 않음
27.2%	39.5%	24.7%	7.4%	1.2%

<표 26> 정보윤리 수준 향상 방법

정보윤리 교육을 통해서	관련법규의 처벌기준 및 홍보 강화	내부통제 강화
53.1%	30.9%	16.0%

<표 27> 정보윤리 교육 담당 기관

학 교	직 장	학교와 직장
16.0%	11.2%	72.8%

<표 28> 정보윤리 교육 방법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	사례중심의 토론	두가지 방법 병행
19.8%	18.5%	61.7%

<표 29> 은행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영향	정보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적 재산권 보호	컴퓨터 범죄의 종류와 내용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	컴퓨터 범죄에 대한 처벌내용
13.0%	8.0%	24.6%	11.6%	13.4%	19.2%	10.1%

V. 結 論

金融機關 從事者の 경우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금전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情報倫理를 요구하고 있다. 銀行員에게 요구되는 情報倫理 내용으로는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종업원 프라이버시 보호, 정확성,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금융 판매에 대한 책임의식, 컴퓨터 범죄예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慶北 安東市內 7개 금융기관 은행원을 대상으로 은행원의 비윤리적 행위경험 유무, 전자금융 판매책임, 은행원의 정보윤리수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 일반범죄와 컴퓨터범죄의 인식차이, 정보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윤리적 행위 경험 유무와 관련된 조사에서 은행원들은 종종 비윤리적 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금융 판매책임에 대해서는 60.5%만이 편리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판매한다고 응답해 전자금융 판매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銀行員들은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와 종업원 감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情報倫理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컴퓨터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情報倫理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 금품횡령 등 전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은행의 컴퓨터를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일시적 가공의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컴퓨터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의 안전대책 미흡 51.9%, 범죄행위자의 도덕성 결여 33.3%, 범죄에 대한 처벌 미약 14.8%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5세 미만의 직원과 근무경력 5년 미만 직원의 경우 범죄자의 도덕성 결여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오기능과 위협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컴퓨터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와 동시에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情報倫理 水準이 높을수록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윤리수준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53.1%가 교육을 통해서, 30.9%가 관련법규의 처벌강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16.0%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서라고 응답해,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정보윤리수준 향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윤리에 대한 논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도 컴퓨터 관련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은행원과 같은 일반직 종사자나 학생 등 우리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컴

퓨터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보윤리가 이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적용되어야만 성숙하고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1. 강성민,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데이터베이스 월드, 1994. 9.
2. 김세헌,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회성출판사, 1989.
3. 김영건, 박상호, 정보처리요원의 직업윤리의식실태 비교분석, 정보시스템연구, 제2권, 영남경영정보학회, 1993. 11.
4. 박효정, 정보윤리 의식의 현황조사 및 제고방안 연구: 국교교사와 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4.
5. 손정동, 지방은행 정보시스템의 개황과 발전방향, 하이테크정보, 1991. 4.
6. 안중호, 정보관리분야에 있어서의 기업윤리: 한국의 기업윤리, 세경사, 1992.
7. 유상진, 홍순구, 금융기관의 컴퓨터 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 정보시스템연구, 제2권, 영남경영정보학회, 1993. 11.
8. 이동만, 정경수, 정보시스템 분야의 윤리문제와 연구동향, KMIS '93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 6.
9. 이종영, 기업윤리, 삼영사, 1996.
10. 정경수,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관의 정립연구, 한국 데이터베이스학회, 1995.
11. 정경수,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한미의 태도비교, 한국경영학회 '93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3. 10.
12. 한인구, 윤중호,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가 컴퓨터 범죄의 인지된 위협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정보학연
구, 한국경영정보학회, 1995. 6.

<國外文獻>

1. Cohen, E. and Cornwell, L., A Question of Ethics :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 1989.
2. Forester, T. and Morrison, P., *Computer Ethics*, 2nd ed., The MIT Press, Cambridge, MA, 1994.
3. Johnson, D. G., *Computer Ethic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94.
4. Johnson, D. G. and Snapper, J. W., *Ethical Issues in the Use of Computers*, 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 1985.
5. Laudon, K. C. and Laudon, J. P.,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4th ed.,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96.
6. Mason, R. O.,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MIS Quarterly*, Vol. 10, No. 1, 1986.
7. Moor, J. H., What is Computer Ethics, *Metaphilosophy*, Vol. 16, No. 4, 1985.